

인 사 말

수행과 포교 그리고 종단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중앙총회 의원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총무원장 선거가 조용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치러진 것은 무엇보다도 중앙총회 의원 스님들의 역할과 협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종책 선거가 되도록 합심협력해 주신 중앙총회 의원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단의 안정과 발전은 독단적인 종무운영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걷어내고 종단과 불교의 역량을 결집해 낼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이 중요합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종도들 모두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소납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중앙총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종단 중흥을 위한 제반 종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도들 모두가 공유하는 비전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승가교육과 신도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승가교육과 신도교육은 종단의 인재불사이며 한국불교의 중흥과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희망입니다. 인재불사는 ‘불사’답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종단의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원, 포교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종단의 행정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소납이 제시한 종단 운영 6대 기조와 제반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무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원에서 금번 제182회 정기 중앙총회에 ‘불기2554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전임 총무원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단의 종무행정이 원만히 유지되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제33대 총무원 공약으로 제시한 종책을 내년도 종무계획과 비교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교육원장 스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교육은 종단의 백년대계입니다. 새로 교육을 총괄하신 덕망있는 분을 추천하였사오니 중앙총회의원스님들께서 선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제33대 집행부의 호법부장 임명동의안도 제출하였습니다. 종단의 기강을 세우고 종헌종법 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자리이니만큼 이 동의안도 원만히 인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94년 종단 개혁이후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32대 총무원에서 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하고 전법회관, 템플스테이정보센터,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국제선센터 건립과 조계사 성역화 불사 등 종단의 기반시설을 마련한 것은 종단 중흥불사의 토대를 만든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간화선 대중화와 수행입문 도서 시리즈 발간, 종단표준 금강경 및 각종 신도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승가와 신도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종단이 안정되고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종도들의 이해와 요구가 소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결실은 32대 총무원장 스님께서 임기를 모두 마치시고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33대 총무원으로 인수인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한 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종단도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내실을 기한다면 이 시대와 사회에서 불제자로서 보살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총회가 소통과 화합의 중심에서 주시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종법령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종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납을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종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중정예하와 원로의원 스님의 뜻을 받들어 총무원장의 책무와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3(2009)년 11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